

노동운동의 또다른 승전보 프랑스의 35시간노동제

번역 :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또하나의 승전보가 날라 왔다. 프랑스의 좌파정부가 오는 2000년부터 10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주35시간노동제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라도 노동시간을 10% 이상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결정은 CGT와 CFDT 그리고 FO 등 프랑스 노동운동의 끈질긴 투쟁이 승리를 거둔 결과이다. 새로 적용될 법률의 내용은 가장 전투적인 중앙조직인 CGT를 제외한 다른 두 노조진영의 요구수준을 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에서는 물론 유연성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와 자본에

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지 모르고 또 한층 더 강력한 집안단속들이 있을 지 모르지만 이번 승리의 기세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각오들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들이 많다.

번역된 자료 중의 하나는 프랑스의 노조운동가가 쓴 글이고, 다른 둘은 각각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의 기사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노조와 정부, 그리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35시간노동제 도입의 함의

그레그 옥슬리(Greg Oxley) / 파리상업노동조합(Syndicat du Commerce de Paris)

출전 : Association "La Riposte"

이 금식감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중요한 업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좌파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임금회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리오넬 죠스팽(Lionel Jospin) 총리는 프랑스의 사용자단체인 CNPF의 완강한 압력에 굴복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죠스팽이 결국 사용자들의 이해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CNPF는 위기에 빠졌고 장 강드와(Jean Gandois)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후임자는 대단한 강경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강드와는 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프랑스 최대의 사용자 단체의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이 '킬러'보다는 '교섭가'에 가까운 인물이라면서 정부에 맞서서 재세의 이익을 방어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토로했다. CNPF는 그동안 2000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35시간노동제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사회-공산당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해 왔다.

그동안 기업체의 사장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그들에게 이번 결정은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놀라고 있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죠스팽 총리는 임금식감 없는 35시간노동제가 '반경제적'(anti-economic)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도미니퀘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재무장관은 한발 더 나가 "모든 사람들은 이같은 법률이 대규모의 고용파괴를 가져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죠스팽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용자들이 모든 수정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총리의 측근 중 한 사람은 리베라사용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좌파당명의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골치아픈 CNPF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되는 것은 앞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2000년까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개별 작업장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려는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손해를 볼 것에 대비해서 작업장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공식 통계만 하더라도 300백만을 넘고 있으며 실제로는 500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대량실업 사태와 점점 더 불안정을 더해가고 있는 단체협약 그리고 전반적인 -특히 젊은층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빈곤화 속에서 CNPF의 전쟁선포와 같은 무모한 시도들은 심각한 사회혼란만을 불러 올 것이다.

주35시간노동제는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정치적인 자각의 결과였다. 이것의 프랑스의 중앙집중적인 정치체제와 지난 5년간의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었다. 1993년의 총선에서 좌파 정당들은 미테랑과 그가 이끌던 좌파 정부의 우경화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쓰라린 패배를 겪어야 했다. 2년 뒤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도 좌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발라뒤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라크의 급진적인 거짓선동에 또다시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시라크의 약속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뒤이어 우파의 총리를 맡은 쥐페가 대처리즘식의 반개혁 노선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1968년의 혁명적인 총파업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과 단체

행동이 분출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사회-공산동맹의 승리는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자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스팽은 온건한 우파사회주의자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기업들은 사적 자본에 문을 열어주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안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민영화될 예정이다. 그는 권좌에 앉자마자 빌보르드(Vilvorde)의 르노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그러나 실업 축소와 노동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35시간노동제와 같은 것들이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진영이 상당히 신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조스팽이 다시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법안의 내용이 3개 노조 중앙조직 중 FO와 CFDT가 내걸었던 요구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35시간노동제는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한층 강도높은 계급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 노동운동이 앞으로 투쟁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법률이 완전히 실현되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이미 국제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태리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유연성'

35시간노동제는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현충 강도높은 계급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 노동운동이 앞으로 투쟁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법률이 완전히 실현되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flexibility)의 공세를 받아들일 것인가. 실업에 대한 공포를 무기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위협에 굴복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멀어질 때까지 착취를 허용하고 그래서 노동자를 기계와 마찬가지로 멀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운동의 힘으로 35시간노동제 나아가 32시간노동제를 유럽의 모든 나라에 관찰시켜서 임금삭감 없는 진정한 워크셰어링(일나누기, work-sharing)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다.

일 덜하기 운동 - 프랑스식 고용안정법

로저 코헨(Roger Cohen)
워싱턴포스트, 1997년 10월 11일

이 자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스퐁 프랑스 총리는 지난 금요일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주노동시간을 현행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석한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2000년 1월 1일을 기해 법정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법방침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

구하는 노동조합의 캠페인이 벌어진 직후에 발표되었다.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 6% 이상 고용을 늘리면서 노동시간을 10% 이상 단축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1인당 9,000프랑(미화 1,500달러·약 14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 12.5%에 달하고 있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은 프랑스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요소였다.

그러나 조스팽 총리는 유럽 단일통화의 발효를 앞두고 엄격한 재정긴축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할 재원이 정부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사용자들은 이 정책이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면서 노동비용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장 강드와(Jean Gangdois)는 금요일 “조스팽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기업연합회도 “정부의 태도는 엄청난 노력과 모험을 필요로 하는 국제경쟁의 무대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1939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유럽통합이 각국 경제를 일정한 틀로 동질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의 방침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프랑스인들의 오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시키으로써 실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유럽 경제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수록 단일통화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난 목요일 프랑스가 인플레이 압박을 격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일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과정에서도 드

러났다.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이론적인 배경은 조스팽의 말대로 “경제성장만 가지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을 정도로 파이를 키울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나눠먹을 빵조각의 크기를 더 작게 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스팽 총리는 금요일의 연설에서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 사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81년 이후 수년동안 -매년 평균 2%에 가까운- 성장둔화를 겪어 왔으며,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의욕과 고용노력을 감퇴시킬 정도로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최저임금의 삭감이나 고용안정의 후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조세의 대폭적인 삭감과 같은 이른바 ‘영글로색슨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한다.

프랑스보다 20% 가량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미국인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경제를 전공한 스티븐 앵글랜더(Steven Englander) 박사는 “그와 같은 길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이론적인 배경은 조스퐁의 말대로
 "경제성장만 가지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을 정도로 피아를 키울 때까지 기다리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나뉘먹을 뽕조각의 크기를 더 작게 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것은 지난 6월 조스퐁이 이끄는 사회주의 정부가 내건 공약의 핵심사항이었다. 하지만 금요일의 정부 발표를 앞두고 내각은 분열과 동요의 조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몇 주전만 하더라도 조스퐁은 "당장 주35시간 노동을 도입하자는 것은 '반경제적'인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총리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지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급진노조의 지도자인 마르코 블론델(Marc Blondel)은 "주35시간 노동법은 최대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조스퐁의 입장은 약간은 신중한 편이었다. 그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협상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쌍방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스퐁은 다른 회사들보다 더 빨리 35시간 노동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작업계획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독일에서는 지멘스와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손실은 장기근속자들을 중심으로 그것도 아주 미미한 정도로 발생하는데 그쳤다. 대신에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노조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인 11.7%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

미라 맥도날드(Myra MacDonald)
 로이터통신, 1997년 10월 20일

프랑스의 노동부장관 마르틴 오브리
(Martine Aubry)는 지난 월요일 뜨
거운 논쟁을 낳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밝히면서 이 정책이 실업을 억제하
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리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좌파정
부는 내년 초 의회의 사전투표를 통해 법
정 주노동시간을 현행 39시간에서 2000
년부터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새로
운 법률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법률은 내년부터 노동시간을 단
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며, 새로
운 법률에 관한 교섭을 위한 기초적인 사
항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과 우파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이 계획이 발표되자 프랑스 최대의 사용자
단체인 CNPF의 장 강드와(Jean Gar
dois) 회장이 사임을 발표했다.

우파정당 드골연합(RPR) 소속인 전
(前) 재정장관 니콜라 사르코쥐(Nicolas
Sarkozy)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저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지
구상의 어떤 나라가 일을 덜 하면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주
장할 수 있느냐?"며 신랄하게 비난을 퍼부
었다.

프랑스인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 역시 프랑스 정부의 방식이

다른 지역의 경향으로부터 '일정한 이탈'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르도
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관련 회의 도중에
가진 로이터와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
고 있는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
랑스 정부의 결정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성
공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는 일정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브리 장관은 "우리는 지금 전
쟁을 하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미 교섭에 응할 뜻을
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이 12.5%
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서 실업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
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프랑스의 정책이 유럽의 모델이 될 것이
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이 미국식의
유연노동시장과 엄격하게 보호되는 유럽
의 모델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대한 지지가 이태리에서 터져 나
왔다. 이태리 정부는 지난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
동시장의 유연화도 고용증가를 꾀해야 한
다는 영국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이 문제
를 다음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고용정
상회의에서 의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
혔다.

프랑스 관리들은 정부가 정적적인 노동
시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

노동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의 정책이 유럽의 모델이 될 것이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이 미국식의 유연노동시장과 엄격하게 보호되는 유럽의 모델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축에 관한 협상을 유도한다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제3의 길’을 마침내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유연한 과정이다.” 오브뤼 장관은 프랑스의 노동법이 현대화되어야 하며 최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이 1주일에 몇 일을 근무하는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나 1년에 몇 달을 일해야 하는 지에 관한 규정, 또는 언제 휴가를 부여해야 한 다든가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브뤼 장관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SMIC)를 개혁하여 시간단위가 아닌 주단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부가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는 등 보다 유연한 노동시간 규정을 협상을 통해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간지인 『La Lettre de l'Expansion』은 정부가 사용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수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납득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그 기사는 “35시

간노동의 안개 너머로 사회적인 파트너들이 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을 평화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협상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드뤼는 “지금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 어떤 방향으로 교섭을 개시하느냐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예비법률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노동시간을 10% 단축하면서 고용을 6% 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1인당 9천프랑이 지급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노동부 성명서는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 기회를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과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